

대전농협 조합장, 소 2마리 사육 사실인가? 거짓인가?

대전농협 김 모 조합장의 자격조건과 관련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모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육했다는 소 2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모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소 2마리를 A 조합원의 축사에 위탁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류상 사육자이며, 형태만 갖춘 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B는 김 조합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축사도 없이 타인의 축사에 소 2마리를 사육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소를 사육한다면 사료를 구입해



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14년 1월 7일 소를 구입하고, 사료는 2월 10일에 구입해 34일간 사료급여의 사실이 없고, 2014년 12월 5일 이후 2015년 8월 25일까지 263일간 사료 구입과 급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CTN 취재진에게 사료급여 내역 비교표와 사료거래명세표에 작성된 거래 내용이 사료대리점에서

작성하지 않고 김 조합장이 직접 썼다는 필적감정서 등을 보여주면서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B 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과 '형사고발 건'에서 김 조합장 측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 1월 7일 소 2마리를 구입해 사육했으므로 영농 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조합장은 소 2마리 문제를 비롯해 보령시 축정동 농지를 임차해 대전농협 조합원에 가입했으나 이후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켜, 조합원으로 가입된 토지 필지는 존재하지 않게 돼 조합원 당연한 탈퇴 문제, 2015년 8월 경매를 통해 매입한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답을 자경했다는 주장 등이 모두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9일자 '[보] 대전농협 조합장, 자격 있나? 없나?' 보도)

현재 B 조합원은 개인의 사비를 들여 대전농협을 상대로 '조합장선거

무효소송'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합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B 조합원은 "김 조합장이 제기한 내용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소 2마리 사육 건 또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으로 유지됐다고 하지만 내부문서의 결재란을 보면 결재권자의 날인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해당농협의 직원들도 김 조합장의 소 사육은 서류상 편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뿐만 아니라 실제 소를 사육하는 A 조합원(조합장 소 2마리 위탁 사육)의 확인서 또한 이렇다저

랬다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사료대리점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김 조합장이 사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모두 거짓인데 이를 서류로 짜 맞춰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농협 상임감사는 조합장에게 제기된 조합원 자격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진 기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실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신찬인)은 지난 14일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연계해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응급처치의 필요성 및 원리, 상황별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는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증을 발급받고 향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을 운영한 충청북

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교육장 전체 소독과 함께 1m이상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해 가림막을 설치했고 입장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관리에도 힘썼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은주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운영했고 지역 내 청소년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올바른 안전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동호 기자

우체국쇼핑몰 영동군 브랜드관 입점 신청·접수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 대응해 지역 농특산품들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며, 우수 먹거리를 알리는 한편 코로나19로 파생된 농촌의 위기 극복에 나선다.

21일 군과 영동축제관광재단은 우체국쇼핑몰 영동군 브랜드관 입점업체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2020 링링동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링링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체국쇼핑몰 영동군 브랜드관을 운영했다. 이 영동군 브랜드관은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특산물 생산자를 돕기 위해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쇼핑몰 내에 개설한 온라인 농·특산물 매장이다.

영동의 과일, 꽃감, 와인, 가공식품 등 최고 품질의 건강 먹거리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는 2억 4천만 원을 투자해 1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초에는 온라인 꽃감장터를 열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7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영동군 브랜드관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체국쇼핑몰 입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재단은 우체국 입점이 어렵게 느껴질 생산자들을 위해 지난 20일 북향문화예술회관에서 사전 신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첫 입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연중 입점 설명회를 개최해 온라인 판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몰에 제품 등록 후 영동군 브랜드관에 입점하게 되면, 평일 할인쿠폰과 각종 기획된 행사(명절, 가정의 달 프로모션 등) 시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청정자연의 햇살과 농가의 정성이 듬뿍 담긴 특산품들로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다양한 판로개척의 시작인 우체국 입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기국 기자

밀양시,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한 힘찬 날개짓

밀양청년창업캠프 창업 브랜딩 교육 4주간 진행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IS밀들-청년창업캠프'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4주간 진행 했다.

4주간 진행해는 교육은 브랜드 개론, 로컬창업사례 소개, 자금흐름 짜기 등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5월 7일에 진행한 2주차 교육에서는 박일호 시장이 참석해 농산물 밀키트 사업, ㈜삼양식품 사업 사

례와 창업 교육생들이 알아야 할 비즈니스 요점 등을 알려주며, 알라랩 방수준 대표와 ㈜세간 박경아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F&B트렌드, 외식창업과 로컬창업 경험기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나노국가산업단지 등과 청년들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시너지를 발휘해 밀양청년만이 할 수 있는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생미희 기자

충주시, 'AI 돌봄 인형' 효돌이 서비스 제공

각 가정에서 건강 생활 관리와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경증 치매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AI 돌봄 인지 인형' 효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는 중증 치매 상태로 악화되기 전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생활기능 보조장비의 체험·교육·대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 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가정에서 건강 생활 관리와 치매·우울증 예방 등 정서, 안전관리를 해주는 인지 인형(효돌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AI 돌봄 인지 인형 효돌이'

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면 음성으로 반응하면서 안부 인사, 상호교감, 식사, 기상, 약 복용 시간 등 알람기능과 함께 노래, 퀴즈, 음악, 치매예방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인지인형 센서를 통해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 동작 감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담당자에게 자동 연락이 가게 되어있다.

이승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AI 돌봄 인지 인형 효돌이'를 활용해 경증 치매 어르신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세종시·국민권익위, '청렴한 세종실현' 협업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협력 ▲공직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의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권고 등 이행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해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상호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조례 제정

청소년의 날 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



청양군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진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청소년의 날에는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 부군수)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호 이사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행사나 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소년재단(041-940-1012)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진 기자

천안청소년상담센터-문치과-블루문드림 협약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립적 성장, 촘촘한 안전망 구축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미원)는 지난 20일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병원장 문은수), 사단법인 블루문드림(이사장 문은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각 기관은 위기(가능)청소년 발굴과 정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진료 편의 협조,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원 센터장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신 문치과 병원과 블루문드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전화상담·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만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전화(1388/041-622-1388)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은성 기자

음성군,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선정



충북 혁신도시가 스마트 응급의료,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스마트 시티로 거듭날 전망이다. 음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오송, 오창, 충북혁신도시가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의 창의적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년간 국비 15억원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재평가해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2년간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와 청주, 진천, 음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타당성 용역, 관계기관 협의, 기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공모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됐다. 사업대상지인 오송, 오창, 충북혁신도시는 도심외곽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의료서비스, 대중교통, 생활서비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충북도와 3개 시·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교통, 생활분야 스마트 솔루션을 기획했다.

먼저, 응급환자 이송 시 실시간 정보 교환과 응급처치 원격의료지도를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소형 공유 전기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배달 폭증에 따른 사회문제와 유류인력 활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인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근거리 배달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병욱 군수는 "기업의 IoT와 연계한 스마트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 확산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범기 기자